

민주연구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월 25일(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경기 진작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1·2차 소비쿠폰 정책 중에서 현재 분석 가능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소비심리 개선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민생회복을 넘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보고서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첫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승수는 약 1.0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약 4,807억 원의 추가 소비 효과에 해당한다.
 - 둘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으로 '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0.24%p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3분기 경제성장률 증가에 약 30% 기여한 수치로 약 1조 6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에 해당한다.
 - 셋째, 경기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단기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은 꾸준히 필요하며, 이제는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한 “5대 대전환 정책”, “기술주도 성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시장 개혁과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인구대응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 등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덧붙였다.